

‘Your Better Life Index’ 를 이용한 OECD 국가의 삶의질 측정

Measuring Well-being using ‘Your Better Life Index’ in OECD Countries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지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1. 서론

삶의질 수준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후생이나 사회정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높은 삶의질 수준을 누리기를 원하며,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현대 국가들 역시 거의 예외없이 국민들의 삶의질 수준 제고와 사회발전을 사회정책의 목표이자 지향점으로 설정한다. 그렇지만 삶의질이 종전보다 향상되었다거나 사회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삶의질 수준 측정에 있어서 모든 국가, 모든 사회,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 설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관점에서 삶의질 수준은 경제적 부의 소유 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는데, 이러한 관점은 여전히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된 바 있는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를 비롯한 측정에서는 정신적인 행복감이나 종교적인 안녕감을, 신경계제단(NEF)의 행복지수(HPI: Happy Planet Index)에서는 생태학적 조건들을 삶의질 측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GHN이나 HPI를 활용한 삶의질 측정 순위와 GDP를 비롯한 경제적 부를 활용한 삶의질 측정 순위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삶의질 수준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라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는 가변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변성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삶의질 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평가에 반영하는 과정은 복지국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객관적으로 지표화된 측정은 현재의 단면적인 삶의질 수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 전체 사회정책의 달성도와 효과성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적 발전의 수준’ 측정은 개

별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차원에서 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 유효한 대체지표(proxy)로 활용되었던 것은 GDP로 대표되는 소득지표였다. 삶의 질에서 경제적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점은 경험적으로도 인정되는 사실이며, 사회발전 역시 어느 정도까지는 경제수준에 비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도 소득지표가 가지는 의미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¹⁾을 비롯하여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삶의 질 및 사회발전 측정에 있어서 GDP가 가지는 한계점이 제기되면서 소득지표가 가지고 있던 지위는 다양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특히 2008년을 전후로 한 글로벌 경제위기 과정에서 경제적 발전 수준이 반드시 사회적 발전 수준과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면서 삶의 질이란 특정한 어느 한 요인(특히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을 가진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과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삶의 질과 사회발전의 측정에서 단일한 소득지표를 지양하고 다양한 차원의 복합적인 지표들을 종합한 일종의 종합지수(composite index)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대표적인 성과로 노드하우스와 토빈에 의해 개발된 경제 후생지수(MEW: Measure of Economic Welfare),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룩셈부르크 스타디의 복지지표(Index of Well-being)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지표들은 모두 인간의 삶의 질 측정 과정에서 '소득'이라는 요인의 절대성을 배제하고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한 사회(국가)의 발전수준과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데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OECD 역시 삶의 질과 사회발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OECD와 유럽의회가 주관한 국제회의에서 Beyond GDP가 선언된 이후(2007), OECD는 경제적 소득의 위상을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격하시켰다. 아울러 '삶의 질과 사회발전 측정(measuring well-being and societal progress)'을 주제로 세 차례에 걸친 World Forum(제1차 팔레르모, 제2차 이스탄불, 제3차 부산)을 개최하여 다양한 차원에서의 삶의 질 측정방법을 회원국 및 참여 국가들과 논의하였다. 특히 2009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3차 World Forum에서는 삶의 질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수준을 벗어나 OECD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표를 선정, 실제적 측정까지 진행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OECD는 창립 50주년을 맞은 지난 해,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핵심지표로서 'Your Better Life Index'를 제시하는 한편, 이를 34개 회원국가와 8개 비회원 협력국가 등 총 42개 국가²⁾에 실제적으로 적용한 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How's Life?: measuring

1)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이란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수준이 빈곤선에 근접할수록 소득과의 강한 관련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수준에 올라서면 삶의 질 체감도 수준이 반드시 소득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역설이다. 일례로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에 미국 국민의 행복 수준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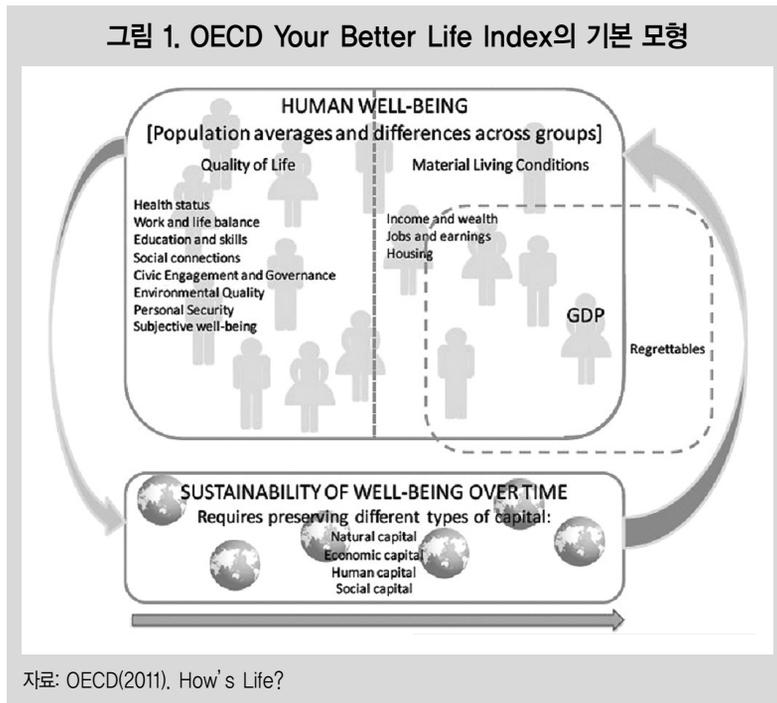
well-being]이라는 종합보고서로 발간하였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서술할 것이지만, Your Better Life Index는 2개 영역, 11개 차원, 2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신력이 높은 국제기구에서 개념적 차원을 벗어나 실제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 가능한 형태의 종합지표를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OECD가 발표한 ‘Your Better Life Index’의 구성을 살펴보고, 주요 지표별 회원국들의 순위 및 종합적인 순위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질 수준과 사회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OECD Your Better Life Index의 구성과 특징

OECD는 Your Better Life Index의 기본적인 설명틀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삶의질 수준(human well-being)

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첫째는 물질적인 삶의 조건들(material living conditions)이다. 앞서 서술한 전통적인 삶의질 측정 지표라 할 수 있는 소득을 비롯하여 직업이나 주거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중요한 것은 GDP의 경우 물질적 삶의 조건들 가운데서도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다



2) OECD가 Your Better Life Index를 적용하여 분석한 40개 국가는 다음과 같다.

- 회원국(34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 칠레, 체코, 독일, 덴마크,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터키, 미국
- 비회원 협력국(8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는 점이다. 두 번째 영역은 삶의질(quality of life)이다. 여기에는 건강, 여가, 교육, 환경, 사회적 관계, 주관적 행복감 등 다차원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결국 OECD는 삶의질 수준이란 물질적 조건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질적 조건들의 총합체라는 점을 지표작업에서 견지한 셈이다. 이와 같이 물질적 조건과 다양한 사회적 조건이 결합된 인간의 삶의질 수준은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하여 자연적·경제적·인문적·사회적 자본의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다시 현재의 삶의질 수준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이행된다.

OECD의 삶의질 측정 모형에서 앞서 언급한 '물질적 삶의 조건'과 '삶의질'은 양대 영역(domain)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을 구성하는 소

득, 직업, 주거, 건강, 여가, 교육, 사회적 관계, 시민참여와 정부, 환경, 안전, 주관적 행복감 등 11개 구성요인들은 인간의 삶의질을 설명하는 차원(dimension)으로 분류된다. OECD는 각 차원별로 평균적으로 5~6개씩의 구체화된 지표를 검토하였으며, 각 지표간 상관관계(correlation)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2개의 지표(index)를 확정하여 'Your Better Life Index' 도출에 활용하였다. 각 영역과 차원별 22개 지표는 <표 1>과 같다.

OECD는 <표 1>에서 제시한 22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하여 세 가지 형태의 순위 자료를 발표하였다. 첫째, 22개 세부 지표에 대하여 구득이 가능한 회원국 및 비회원 협력국가들의 자료를 제시하여 국가간 순위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표 1. Your Better Life Index 구성

영역	차원	세부지표	지표설명	연도
물질적 삶의 조건	소득	가계순가처분 소득	근로 및 금융소득과 사회적 이전 등 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장비용 등을 뺀 순가처분소득	2009
		가계순금융자산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현금, 예금, 주식 등)	2009
	직업과 임금	고용률	15~64세 인구의 취업률	2010
		장기실업률	15~64세 인구 중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 비율	2010
		1인당 연간임금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평균총임금	2009
	주거	방의 갯수	거주공간의 방의 개수/거주인 수	2009
		주거의 질	욕실, 화장실 등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인구 비율	2009
삶의 질	건강상태	기대수명	출생시 기대수명	2009
		주관적 건강수준	스스로 평가한 건강수준이 '매우 좋다' 또는 '좋다' 고 판단한 비율	2009
	여가	장기근무시간	주50시간 이상 초과근무 근로자 비율	2009
		개인 여가시간	상근근로자가 하루 중 취미, 여가, 자기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	2000
		주부 고용률	6~11세 학령기 아동을 가진 주부의 취업률	2008

〈표 1〉 계속

영역	차원	세부지표	지표설명	연도
삶의 질	교육	교육수준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이상 교육을 받는 인구비율	2009
		인지능력	15세 학생의 읽기능력(PISA score)	2009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지원	도움이 필요할 때 믿을 수 있는 친척·친구가 있는 비율	2010
	사회참여와 정치	투표참여율	투표가능인구 중 투표에 참여한 비율	2007
		정책결정 참여	정책결정에서 공식적이고 개방적인 협의구조·과정의 수	2008
	환경	대기오염	10만명 이상 거주지역의 1m ³ 당 미세먼지(PM10) 농도	2008
	치안	살인율	인구10만명당 고의적 살인 비율	2008
		위험인지도	지난 1년간 폭력·폭행 등을 경험한 비율	2010
	주관적 행복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2010
		정서적 균형감	삶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인구 비율	2010

자료: OECD(2011), How's Life?

물론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순위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각 지표별로 나타난 국가들의 값을 상위 20%, 중위 60%, 하위 20%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전체 대상국가들 가운데 해당 국가의 지표가 위치하는 분포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22개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Your Better Life Index’라는 종합지표를 산출한 후, 34개 회원국들의 종합순위를 제시하였다. 이 때 가중치는 ①각 영역별 동일 가중치 ②각 차원별 동일 가중치 ③지표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부여한 가중치 등 3가지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각 지표별 국가 순위를 상위 10개국과 하위 5개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OECD 평균 및 우리나라의 순위를 별도로 제시하였다. 또한 마지막 종합순위에서는 각 차원별 동일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2개 지표 가운데 장기근무시

간과 주부 고용률에 대한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3. ‘Your Better Life Index’를 이용한 OECD 국가의 삶의질 측정

1) 영역별 국가 순위 및 우리나라 위치

물질적 삶의 조건 영역은 소득(income and wealth), 직업과 임금(jobs and earnings), 주거(housing) 등 3개 차원의 7개 지표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물질적 삶의 조건에서 장기실업율(long-term unemployment rate)이 1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ECD 평균에 순위에 산정할 경우에도 평균보다 낮게

위치하였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1위~10위까지의 국가들에 물질적 자원 수준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오히려 이들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1995년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표에서 OECD 평균에 근접해 가는 등 경제적 활력도 측면에서 정책적 성과가 적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고용률은 낮지만 실업률 역시 상대적으로 낮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과 22개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니계수 등 분배지표들이 중위수준에 있다는 점도 상대적으로 순위는 낮

지만 안정적인 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삶의질 영역은 건강(health status), 여가(leisure and personal care), 교육(education and skills), 사회적 관계(social connection), 사회참여와 정치(civic engagement and governance), 환경(environmental quality), 치안(personal security),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well-being) 등 8개 영역의 15개 지표로 구성된다.

삶의질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지표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15세 학생의 읽기능력으로 측정된 인지능력(1위), 정책결정

표 2. 물질적 삶의 조건 분야 지표별 국가 순위 및 우리나라 위치

순위	소득(income and wealth)		직업과 임금(jobs and earnings)			주거(housing)	
	1인당 가계 순가처분소득	1인당 가계 순금융자산	고용률	장기실업률	정규직 1인당 연간임금	방의 갯수	주거의 질
1	룩셈부르크	미국	아이슬란드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스페인
2	미국	스위스	스위스	멕시코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3	노르웨이	벨기에	노르웨이	노르웨이	스위스	뉴질랜드	스웨덴
4	캐나다	이스라엘	네덜란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호주	덴마크
5	호주	룩셈부르크	덴마크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미국
6	프랑스	영국	스웨덴	호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7	오스트리아	일본	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8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이탈리아
9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10	벨기에	이탈리아	캐나다	스웨덴	캐나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하위 5개국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포르투갈	이스라엘	헝가리
	러시아	멕시코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체코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멕시코	폴란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칠레
	칠레	노르웨이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남아공	슬로바키아	터키	스페인	슬로바키아	폴란드	터키	
대한민국	25위	18위	23위	1위	19위	24위	27위
OECD 평균	21위	15위	22위	20위	15위	19위	23위

과정에서의 공식적이고 개방적인 협의구조(6위), 지난 1년간 폭력이나 폭행 등을 경험한 비율(9위) 등의 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주관적 건강수준(31위), 사회적 관계 지원(37위), 투표참여율(31위), 대기오염(32위), 삶의 만족도(26위) 등은 OECD 평균순위보다 낮은 중하위권에 위치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대수명과 교육, 정책기제, 치안 등 삶의질 제고를 위한 물적 기반의 성격이 강한 차원에서는 그동안의 꾸준한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된다. 반면, 사회적 관계를 비롯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한 지표들

은 대부분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지출 증가에 조응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수행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종합 국가 순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ECD는 22개 지표에 대하여 세 가지 종류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Your Better Life Index’를 34개 회원국별로 산출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11

표 3. 삶의질 분야 지표별 국가 순위 및 우리나라 위치

순위	건강상태(health status)		여가(leisure and personal care)			교육(education and skills)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장기근무시간	개인 여가시간	주부 고용률	교육수준	인지능력
1	일본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이스라엘	체코	대한민국
2	스위스	뉴질랜드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슬로바키아	핀란드
3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에스토니아	캐나다
4	스페인	호주	덴마크	프랑스	스위스	미국	뉴질랜드
5	호주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독일	스웨덴	폴란드	일본
6	이스라엘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호주
7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헝가리	스페인	뉴질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8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9	프랑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노르웨이
10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영국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하위 5개국	브라질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페인	칠레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대한민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그리스	멕시코	브라질
	인도	일본	멕시코	폴란드	이탈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남아공	슬로바키아	터키	일본	터키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19위	31위	자료없음	11위	자료없음	16위	1위
OECD 평균	24위	21위	23위	10위	17위	19위	17위

〈표 3〉 계속

순위	사회적 관계 (social connection)	사회참여 (civic engagement and governance)		환경 (environmental quality)	치안 (personal security)		주관적 행복감 (subjective well-being)	
	사회적 관계 지원	투표참여율	정책결정 참여	대기오염	살인율	위험인자율	삶의 만족도	정서적 균형감
1	아이슬란드	호주	영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캐나다	덴마크	덴마크
2	아일랜드	벨기에	스웨덴	뉴질랜드	일본	일본	캐나다	아이슬란드
3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미국	노르웨이	일본
4	덴마크	미국	호주	에스토니아	슬로바니아	폴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5	스웨덴	칠레	캐나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이스라엘	네덜란드	네덜란드
6	호주	덴마크	대한민국	영국	인도네시아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7	캐나다	터키	뉴질랜드	프랑스	스위스	인도네시아	스위스	중국
8	룩셈부르크	인도네시아	슬로바니아	슬로바키아	독일	호주	핀란드	스웨덴
9	영국	프랑스	핀란드	호주	스페인	대한민국	이스라엘	영국
10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하위 5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터키	칠레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대한민국	인도	프랑스	인도	멕시코	브라질	인도	이탈리아
	터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칠레	러시아	인도	포르투갈	헝가리
	중국	폴란드	이스라엘	중국	브라질	멕시코	중국	에스토니아
	인도	스위스	칠레	인도네시아	남아공	남아공	헝가리	터키
대한민국	37위	31위	6위	32위	30위	9위	26위	18위
OECD 평균	22위	22위	16위	23위	29위	19위	21위	26위

개 차원(소득, 직업과 임금, 주거, 건강, 여가, 교육, 사회적 관계, 사회참여와 정치, 환경, 치안, 주관적 행복)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 방식을 따라 산출된 종합순위를 제시하기로 한다.

OECD 회원국 중 Your Better Life Index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0.81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캐나다(0.809점), 스웨덴(0.801점), 뉴질랜드(0.790점), 노르웨이(0.780점) 등의 국가가 5위 이내의 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점수는 0.529점으로서 34개 회원국 가운데 26위에 위치하여 전체

적으로 중하위권 정도의 삶의질 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순위에 있는 국가들은 그리스, 슬로바키아, 헝가리,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칠레, 멕시코, 터키 등 8개국이었다.

4. 결론 및 시사점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각계각층의 복지요구 확대 등을

표 4. OECD 회원국의 Your Better Life Index 종합순위

(단위: 점)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호주	0.811	13	영국	0.727	25	폴란드	0.533
2	캐나다	0.809	14	오스트리아	0.707	26	대한민국	0.529
3	스웨덴	0.801	15	아일랜드	0.706	27	그리스	0.528
4	뉴질랜드	0.790	16	독일	0.693	28	슬로바키아	0.496
5	노르웨이	0.780	17	벨기에	0.691	29	헝가리	0.466
6	덴마크	0.772	18	프랑스	0.686	30	포르투갈	0.465
7	미국	0.754	19	일본	0.614	31	에스토니아	0.413
8	스위스	0.753	20	아이슬란드	0.602	32	칠레	0.380
9	핀란드	0.747	21	슬로베니아	0.593	33	멕시코	0.369
10	네덜란드	0.746	22	스페인	0.592	34	터키	0.279
11	룩셈부르크	0.745	23	체코	0.585			
12	이스라엘	0.740	24	이탈리아	0.573			

자료: OECD(2011), Designing Your Better Life Index: methodology and result.

통해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복지수요의 증가는 재정지출 부담의 증가와 연결된다. 따라서 향후 국민들의 삶의질 제고는 미래의 위험요인에 어떻게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효과적으로 극복해 내느냐, 그 과정에서 각종 사회정책이 지속가능하면서도 체감도를 높이는 제도로 이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단순한 국가별 모니터링'에 불과하다는 다소 폄하된 평가까지도 듣고 있는 OECD의 Your Better Life Index를 비롯한 종합적인 지표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지표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평가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 복지제도의 성과와 한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OECD Your Better Life Index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여겨진다. 2004년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World Forum에서 <사회 발전 측정을 위한 OECD 글로벌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로 OECD는 삶의질, 웰빙, 지속가능한 발전 측정에 대한 범세계적인 국제 통계 수립 노력을 기울였으며, 해당 지표들의 정의와 개념, 측정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논의하여 왔다. Your Better Life Index는 이와 같은 노력의 일차적인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서 개념적 차원의 논의를 벗어나 실제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 가능한 형태의 종합지표를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OECD가 2011년에 발표한 Your Better

Life Index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각 국가의 상이한 사회적 여건과 정책 실행 환경을 동일한 지표로 측정하여 국가간 직접 비교를 시행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통계의 질의 문제, 가중치 설정의 문제 등은 여전히 OECD 내부에서도 논의가 진행중인 사안이다. 또한 각각의 지표 또는 차원간 상관관계나 삶의 질 수준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분석이 미흡한 수준이어서 Your Better Life Index가 현재의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보다 적합하게 설계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향후 개선이 필요한 문제이다. 결국 Your Better Life Index는 하나의 완결된 형태의 지표라고 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삶의 질과 사회발전 측정’의 첫 번째 발자국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제3차 World Forum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각 지표값을 웹사이트(www.oecdbetterlifeindex.org)에 공개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지표 활용도와 적절성을 평가하여 완성해 가는 ‘위키디피아’ 식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Your Better Life Index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은 유럽 및 미주 국가들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은 사회정책의 전통이 깊고 사회적 연대와 시민사회의 참여 역사가 축적된 국가들이므로 순위 자체가 낮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로 우리 사회가 가진 강점을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이 지난 10~15년 사이에 비하여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그동안 꾸준한 지출 증가와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점차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사료된다.

Your Better Life Index 상에 나타난 결과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순위가 최근에 국가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 포르투갈 등보다 높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국가들과 유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남유럽 국가들은 낮은 경제활력과 재정지속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의 확대에 따른 고복지 수준을 부담할 능력 부족 등을 지적받아 왔다. 물론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고부담-고복지의 유럽식 모델이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급속한 고령화를 비롯하여 복지욕구의 분출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들 국가의 복지모형과 개혁 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미형 복지국가 유형을 가진 국가들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높게 위치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와 재정 분야에서 성과가 양호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³⁾, 상대적으로 물질적 조건과 인적 자원 측면에서 우수성을 가지고 있고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 재정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동안 북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국가의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김용하 외(2011), 지속가능한 선진복지모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셋째, 우리나라는 지표별 OECD 평균 및 상대적 순위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물질적 조건(소득)과 인적자원 수준(교육), 정치적 참여와 민주화, 건강의 결과물(기대여명), 안전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재정성과와 사회정책 지출의 결과 지표들로서 전술한 바와 같이 꾸준한 투자의 성과로 보여진다. 반면, 사회적 관계와 환경 관련 지표들을 비롯하여 정책의 체감도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는 주관적 지표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지표들의 순위가 낮다는 점은 삶의질 측정과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들과 더불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점으로서, 복지지출을 비롯한 사회적 투자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체감도가 아직 낮고, 경쟁 강화에 따른 현실상의 각박함과 피로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장과 선순환하는 복지제도의 순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